

알레르기학회와 보낸 30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회장, 서울의대 내과

민경업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 우리 학회는 1972년에 창립되었으므로 금년이 창립 40주년이 되었으니 강산이 변해도 4번이나 변했을 시기가 다. 우리 학회는 고 강석영교수님을 빼고서는 도저히 역사를 이야기 할 수 없다. 나는 학회의 초기 10년간은 직접 접하지 못했으나 1982년 내과 전공의를 마치고 펠로우를 시작할 때부터 알레르기학에 몸담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 강석영교수님의 지도를 직접 받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창립 40주년이 되는 금년 5월 25일과 26일에 열릴 춘계학술대회기간에는 그동안 우리 학회의 발자취를 되새겨보는 박물관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가 한창이다. 우리 학회가 처음 창립될 당시에는 ‘대한알레르기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미국 알레르기학회가 ‘천식’을 학회명에 삽입하면서 국제적인 추세와 우리 학회 회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천식이라는 질환에 대한 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년에 학회이름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로 개명하였다.

우리 학회의 창립에는 다른 학회에는 없는 독특한 사연이 있다. 때는 1972년 말 당시 문교부, 지금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과학용어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과학용어 표기법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allergy를 우리말로 어떻게 표시할지를 정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강석영교수께서는 allergy에 대한 연구가 독일에서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영어 발음대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독일어 발음을 따라서 알레르기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학회 공식문서로 건의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조언이 있었으나 아직 학회가 없던 시기라 학회창립을 서두르게 되었다. 당시는 10월 유신 직후로 살벌한 계엄치하였으므로 학회창립을 위한 집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강석

영교수를 비롯한 학회 원로들이 백방으로 노력하여 어렵게 집회허가를 얻고 1972년 11월 30일 대한알레르기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학회가 출범하였다.

대한알레르기학회 창립 발기인의 명단을 보면 알레르기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진료에 임하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조금 거리가 먼 분들도 여러분 포함되어 있었다. 고 이기영교수님께서 회고담에서 알레르기 전도사라고 표현하셨듯이 강석영교수께서는 만나는 분들마다 알레르기학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동참을 권유하셨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1972년 대한알레르기학회를 창립하고 난 후 강석영교수께서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회 창립에 노력하셨다. 우선 1973년 3월에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경기지회가 창립되었다. 경기지회 다음으로는 인천지회, 광주/전남지회, 대전/충남지회가 뒤따라서 창립되었는데 강석영교수께서는 지회 창립총회에서 항상 제일 먼저 특강을 해 주셨다. 서울지회는 1981년 4월에야 창립되었으며 이 자리에서도 강석영교수께서는 ‘미국알레르기 학회의 근황’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다. 알레르기학의 전도에 열심이셨던 강석영교수님께서 유독 서울지회 창립을 10년 가까이 미루신 이유는 서울지역의 회원들은 대한알레르기학회 본 학회의 여러 가지 학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알레르기학에 접할 기회가 많았으나 지방회원들은 이러한 기회가 적었으므로 먼저 지방회원들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지회설립을 독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려 때문이었다.

내가 알레르기학에 몸 담은지 30년이 된 지금에야 회상하니 그동안 정말 앞만 보고 달려 왔다는 생각이 든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 한다고 노력하였으나 별로 내세울 만 한 것은 없고 만약 있다면 전부 다 주위에 계신 은사님, 선배님, 동료, 후배들이 도와주신 결과이며 특히 고 강석영교수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주위에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회장이라는 명예까지 받았으니 모든 것이 나의 행운이며 오랜 추억으로 간직하겠다.

아직 젊은 후학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나 지나고 보니 인생은 참으로 빨리 흐른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분들에게 이제는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것을 권유하고 싶다.